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3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다시 듣고 싶은 설교 ㉔

## 순례자의 역행

(창 20:1-18)



고 이종운 원로목사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버린 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기에 마음이 무척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랄에는 아비멜렉과 같은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아내 사라로 인하여 올 시험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하였고, 결국 그 거짓말이 화근이 되어 자기 이름에 가장 더러운 먹칠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비멜렉에게 잡혀갔던 사라는 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어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후대에 와서까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던 그가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는 한 계단씩 올라가지만 계단 위에서 떨어질 때는 한 순간인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 한 마디로 순식간에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1. 비겁한 죄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위해 차라리 자신이 희생을 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가르치던 그가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랄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은 너 나 할 것 없이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별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2. 반복한 죄

아브라함은 일찌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내 사라로 인하여 다가올 시험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묻거든 누이라고 말할 것을 아내와 이미 합의했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실제로 바로는 사라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이 사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년 후의 일이며 아직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랄에서의 아브라함은 이미 99세나 되었고 믿음이 성숙

한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없어진 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의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므로 이방 사람 아비멜렉 앞에서 책망을 받는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과거의 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애굽에서의 죄를 빛의 세계로 이끌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여 훗날 또다시 같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3. 믿음에서 떨어진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들어갈 때 어떤 환경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마 14:31)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시소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자기 자신은 낮아 집니다. 그러나 자기를 자주 높이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낮아 집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높이면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무시했습니다. 그랄에 간 아브라함은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11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랄 백성들을 무시한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교만과 불순종, 또 자기를 높인 마음이 다른 사람을 천대한 격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결여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신 것은 그의 죄에 무관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아브라함의 이 죄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혹여 하나님 앞에 범죄 한 것이 있으면 뜨거운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형제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례자는 고 이종운 원로목사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듣고 싶은 설교 10편을 선정하여 사순절 기간까지 게재한다)

# 보빙사절단의 방미와 선교의 유희(允許)



손달익 위임목사

## 정치·외교의 영역인

조약 체결·공사관 설치·사절단의 방미는  
한국 선교가 추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첫 선교사의 내한으로 이어졌다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 존재하지 않기에  
교회사 역시 일반 역사와 분리될 수 없다



미국에 도착한 보빙사절단



이수정



존 헤론 선교사



청년시절 언더우드 선교사

1882년 5월 22일 조선과 미국은 제물포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1871년 발생한 신미양요 이후 쇄국정책을 더욱 강하게 고수하던 조선이 입장을 바꿔 조약을 체결한 것은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청나라가 중재에 나섰다 때문이었다. 이 조약은 조선이 서양 국가와 최초로 맺은 통상조약으로 종교의 자유나 선교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미국은 '학자를 파견하여 조선의 언어와 문학, 예술을 연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이해하였다.

조약의 결과 1883년 5월 푸트(Lucius H. Foote)가 초대 주한미국 공사관으로 내한하였다. 푸트는 고종을 만나 미국에 친선사절단을 보낼 것을 건의하였고 고종이 이를 받아들여 특명전권공사 민영익을 필두로 사절단이 구성되었다. 흔히 이 사절단을 보빙사 또는 견미사절단이라고 부른다. 보빙사는 1883년 7월 출발하여 일부는 미국을 방문하고 12월에 귀국하였고, 또 일부는 미국 순방을 마치고 유럽을 들렀다 1884년 5월 귀국하였다. 그런데 보빙사는 한국 선교의 공식적인 개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빙사는 1883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기차를 타고 시카고로 이동했는데 이 기차에는 가우처(John F. Goucher) 박사가 타고 있었다. 미감리회의 목사인 가우처는 사절단을 만나 조선의 이모저모를 알게 되면서 조선 선교를 염원하게 되었다. 그는 11월 미감리회 본부에 조선 선교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며 2천 달러를 기부하였고 이어 1884년 1월 감리회의 일본 선교사인 매클레이(Robert S. Maclay)에게 조선을 방문하여 선교의 가능성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같은 시기 일본과 중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을 통한 조선 선교 개시를 요청하고 있었다. 이들은 계속해서 기독교 언론과 잡지에 호소문을 싣고 이수정이라는 조선인도 선교를 호소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수정의 호소를 접한 미국장로회는 조선 선교를 모색하기 시작해 1884년 4월 의사인 헤론(John W. Heron)을 최초의 한국선교사로, 7월에는 목사인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를 한국 최초의 '복음선교사'로 임명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가우처의 요청을 받은 매클레이는 1884년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조선을 방문하였다. 그는 6월 30일 이미 일본에서 교분을 쌓았던 김옥균을 만나 고종에게 '의료와 교육사업'의 허락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7월 3일 매클레이를 다시 만난 김옥균은 원하던 대답을 들려주었다. 고종이 매클레이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허락하였다는 것이었다.

매클레이는 푸트 공사관에게 이후 내한할 선교사들을 위해 미국공사관 근처의 경사진 땅을 매입할 수 있게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본국에 선교 유희가 났음을 알렸다. 매클레이의 보고를 받은 미국의 감리회도 조선 선교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1884년 말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박사, 스크랜턴 대부인(Mary F. Scranton),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등을 한국선교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가장 먼저 정주한 것은 앞서 언급한 이들 중 한 명이 아니라 미국 북장로회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었다. 그는 1883년 중국선교사로 파송 받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현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안타까워한 주변에서 알렌에게 조선행을 권유하였고 알렌은 조선에 외국인들을 위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선에 가기로 결심했다. 1884년 7월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조선행 승인을 받은 알렌은 9월 미국공사관 의사 신분으로 조선에 들어와 최초의 내한선교사가 되었다. 알렌은 미국공사관 인근의 집을 매입하여 사택으로 삼았는데 이곳은 현재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로 유명한 덕수궁 중명전이 위치한 곳으로 앞서 매클레이가 점찍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이처럼 정치·외교의 영역인 조약 체결과 공사관 설치, 사절단의 방미는 한국 선교가 추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첫 선교사의 내한으로 이어졌다.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 존재하지 않기에 교회사 역시 일반 역사와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이 과정의 첫 매듭을 지은 가우처는 '에티오피아 내시 앞에 나타난 빌립'에 비유되며 '은둔의 나라'의 복음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 사순절 첫 주일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음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21-23)

### 고 이종윤 목사님 영전에

## '님'을 그리며



정병무 은퇴장로 (6교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자후(師子吼)와 같은 “님”의 목소리가 우리들의 귓전을 아직도 맴돕니다.

그토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송두리째 바쳐 한 세상을 마감하신 “님”의 헌신은 마치 우리의 대속제물 되신 주님의 희생을 방

불케 하시었으니 그 큰 사랑 그 큰 열정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허탈에 빠져 있습니다.

뭇내 서러움을 참아내는 양떼들을 모르는 척 뒤로하고 “어찌 한 번 돌아도 보지 않고 떠나실 수 있습니까?”라고 “님”의 대답이 그리워집니다.

인간의 영육을 성숙으로 갈라놓았던 옛 초

대교회의 “영지주의”를 온 힘을 다하여 비판하시던 그 선포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육신은 약한 것이 아니라 영의 장막임을 깨우쳐 주시려고 온 열정을 다 쏟으시면서 어찌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스스로를 혹사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젠가 “장로님 잘 아시는 한의원이 있습니까?”라고 전화로 물으시어 “제가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좀 안내 해주시겠습니까?”하시어 “예, 제가 모시지요”하고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도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하시기에 제가 “왜 그렇습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눈가에 웃음을 머금고 “목사라는 사람은 매사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병원에서 교인을 만나면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요.”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저희들 곁을 홀연히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움을

말할 수 없었던 “님”의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옵니다.

“바로 이 분이야말로 선한 목자 주님의 충성된 제자이었구나!”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웃음을 여미게 됩니다.

고 이종윤 목사님은 개혁신교회 역사상 이 시대의 별과 같은 선도자이시며 이 나라 기독교 130여 년 역사에 불후의 업적을 여러 가지로 남기셨으니 길이 그 족적이 빛나리라 믿습니다. 국내 각 교단의 대표 신학자 63명을 추천받아 약 3년여의 연구 토론을 거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현대어로 재번역 하신 것은 그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님”의 안식을 기원하며 먼 훗날 재림심판 날에 다시 뵈기를 기다리면서 지워질 수 없는 그 음성을 귓전에 굴러 봅시다.

### 만민에게 전도

## 서울교회 「70인전도대」를 다시 시작하며



김지수 안수집사 (70인전도대 부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실로 꿈만 같습니다. 서울교회의 고난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7년여 중단되었던 70인전도대를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신 전능하시고 신

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

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스런 마음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있는 대치동을 세상에서는 대치동 학원가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밀집된 수많은 초·중·고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서울교회 예배당이 채워지고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부흥하며 서울교회 제2의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봄, 다시 시작하는 70인전도대는 노방전도로 시작하며 선교회와 전도회도 협력합니

다. 수요일예배 후에는 전도회와 권사회, 토요일 오후에는 선교회와 스테반회를 중심으로 노방전도를 합니다. 주일에는 점심식사 후 자원하시는 분들이 노방전도를 할 계획입니다. 70인전도대도 수요일, 토요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성도님들의 자원하는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그 귀한 일에 소중한 시간을 드려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시길 기대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 필그림 산우선교회 다시 시작!

교회 회복과 더불어 평소 산행에 관심과 뜻을 같이 했던 집사님들이 모여서 그동안 잊혀졌던 서울교회 내 선교회 중 하나인 '필그림 산우선교회'를 복원하고자 지난 주말 2/18(토) 새벽기도를 마치고 청계산 산행을 가졌습니다.

'필그림 산우선교회'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신앙을 돈독히 하면서, 산행을 통하여 전도활동 및 성도간의 교제와 신력, 체력, 생활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로 함께 하시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소원합니다.

예전 산행을 같이 하셨던 필그림회원 성도님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땅 끝까지 복음전파와 성도간 친교의 선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필그림 산우선교회 재창립 위원회
- 회장: 예약식 안수집사 010-5015-0475
- 총무: 김웅기 안수집사 010-3341-1224

## 2023년 봄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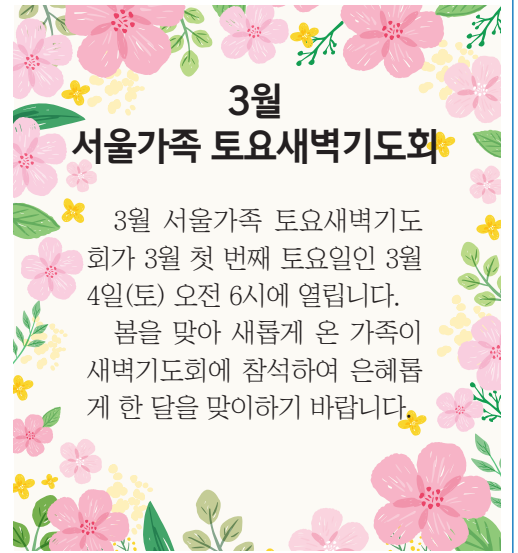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소
시편	화, 오전 10:30-12:00	3.7-4.25(8주)	현종필 목사	서울교회 602호
히브리서	목, 오전 10:30-12:00	3.9-4.27(8주)	조원영 목사	서울교회 602호
아기학교	주일, 오후 2:00-3:10	3.12-5.14(10주)	강남희 전도사	서울교회 706호
살롬경로대학	목, 오전 10:30-13:30	3.9-5.11(10주)	박미라 전도사	서울교회 101호



청년부 수련회가 지난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은혜롭게 열렸습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2월27일	월	민 23-25		왕상 1-4	
2월28일	화	민 26-28		왕상 5-8	
3월1일	수	민 29-31		왕상 9-13	
3월2일	목	민 32-33		왕상 14-18	
3월3일	금	민 34-36		왕상 19-22, 왕하 1-3	
3월4일	토	신 1-2		왕하 4-8	
3월5일	주일	신 3-4		왕하 9-15	



## 3월 서울가족 토요일새벽기도회

3월 서울가족 토요일새벽기도회가 3월 첫 번째 토요일인 3월 4일(토) 오전 6시에 열립니다. 봄을 맞아 새롭게 온 가족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은혜롭게 한 달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농어촌100교회 Vision2030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 비전 2030 후원자  
김영희·이현정(2구좌)
-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임종현·김양지(1/2구좌)
-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김영희·이현정(1/2구좌)

### 동정

- 식사 제공 : 4교구 하태현 안수집사·안선희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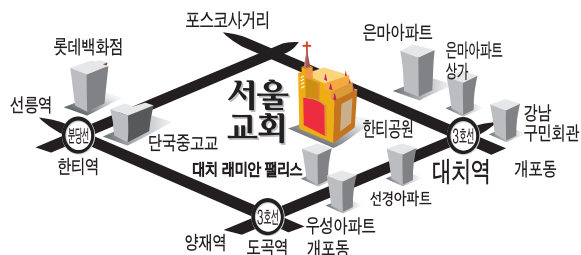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영성을 구비하는 성도되게 하소서.
2. 사순절 기간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이웃을 섬기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복음화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 홀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 홀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